

‘일본우취진흥협회’와의 인터뷰

허진 우표지간행위원장

일본의 우취진흥협회(Society for Promoting Philately)는 2016년 4인의 우취가들이 결성해 2017년 4월 14일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되어 각종 우취진흥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국내외 우편제도와 우표류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보급개발, 성과발표 및 정보공유 등의 문화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관련 제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취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케 한다는 목표의식 아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 중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협회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 일본의 유력 우취가들이 국제전시회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점이다. 일반적인 우표수집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엘리트들의 진지한 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취진흥협회와의 인터뷰를 성사시켜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해당 답변은 요시다 타카시(吉田 敬) 이사장과 요코야마 유우조(横山裕二) 이사가 정리해 주었다. 요시다 타카시 이사장은 필라코리아에도 참가해 챔피언 클래스에 자신의 프로이센 전통우취 대금상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1.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우취협회만을 생각해 왔으나 우취진흥협회가 요 최근 놀라운 속도로 세를 과시하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진흥협회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 성격을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라면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상 NPO(Non Profit Organization)라고 불리는 단체들 가운데, 1998년 12월에 시행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규정에 의해 관할청(당 법인의 경우는 동경도(都)으로부터 설립이 인증된 단체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입니다. 법인격을 가진 ‘인증 NPO 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란 수익을 단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주된 사업활동에 충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해진 상업활동을 하는 등 수익을 얻는 행위가 일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 NPO 법인의 수입은 정회원 및 일반 회원으로부터의 회비,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우표상이 지불하는 약간의 출점료가 대부분입니다.

2. 진흥협회와 우취협회는 일본우취연합의 전시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인 전시회 심사를 통해 국제전 참가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히 조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STAMP EXHIBITION 2025 JAPAN

全日本郵便 スタンペックスジャパン2025 記念企画

WEB セミナー

競争切手展に向けた作品の改善方法

2021年4月~6月、3回シリーズ

4月4日(日)	15時開演	講演「郵票展「郵票展」の開催法」(佐藤 敬一)
5月4日(日)	15時開演	講演「どうして心を動かさなかったか?」(吉田 敬)
6月4日(日)	15時開演	講演「食事をやめるまで一歩の差を埋めた私の読書習慣」(山田 孝)

一部の特典として、講演会によるプレゼント(60分)と質疑応答(最大30分)を2講演行います。

司会進行 横山 裕二

参加者氏名: 菊地 恵美子氏, 原 孝氏, 佐藤 敬一氏, 吉田 敬氏

主催団体: 特定非営利活動法人 郵趣振興協会

観覧方法: 視聴チケット (1,000円) をお求めの上、ご参加ください。

配信方法: ZOOM

視聴チケット (1,000円) で、3部のセミナー全てをリアルタイム視聴と即日アーカイブ視聴が可能です。2021年6月末までにご利用いただけます。当協会の2021年度賛助会員から「日本スタンペックスジャパン2025」活動中には、視聴チケット1枚が郵趣振興協会へ送られます。それ以外の方は視聴チケット販売を申し込めるスタンペディアにてお買い求め下さい。

なお、本セミナーは、授業、内容を転載した上で、別途動画配信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特定非営利活動法人 郵趣振興協会

Society for Promoting Phila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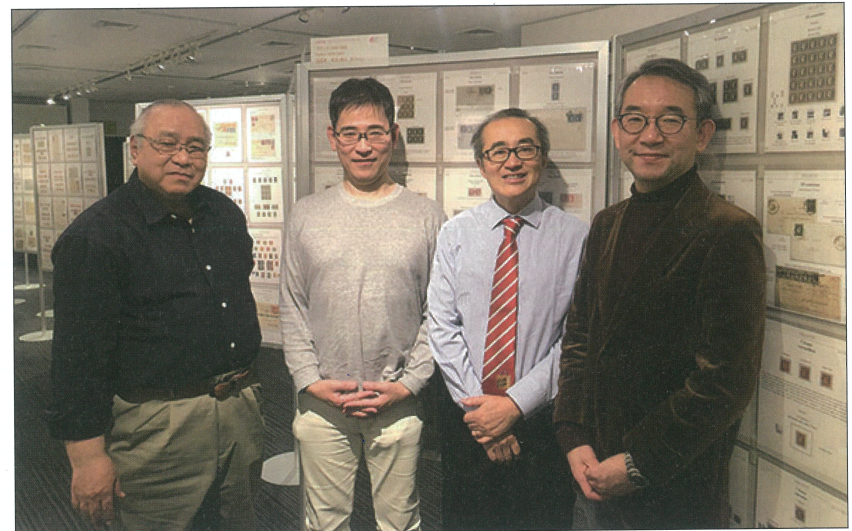
당 NPO 법인이 주최하고 있는 ‘스탬팩스 재팬’(Stampex Japan)은 FIP 등록 심사위원에 의한 FIP의 규칙에 준거한 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제전 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우표전시회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우취협회는 일본의 유서깊은 우취단체인 것에 비해, 당 NPO 법인은 회원수 및 사업 규모 어느 측면에서 보나 소규모의 단체이므로 사업으로서의 경합 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취의 진흥과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Stampex Japan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동 협회로부터 후원을 얻고 있는 동시에 동 협회 소속의 FIP 등록 심사위원을 파견받는 등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두 협회의 활동을 보면 우취협회가 우표취미의 일반적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면 진흥협회는 고차원적인 컬렉션 축조와 국제전시회 참가에서의 고득점을 겨냥한 특수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저의 관찰이 타당한 것인지?

‘일종의 노동분업’ 즉 ‘살림살이’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당 NPO 법인은 특별히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직 규모에 걸맞는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이 그나마 주어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시회 참가에서의 고득점을 노린 특수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Stampex Japan은 전시 가능한 총 프레임 수가 100틀로 한정되어 있기에 가능한 출품작은 20 작품 이하가 되므로 개개의 출품자에 대해 국제전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자료 제시와 전시 기술면에서의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심사위원과의 대화(상호비평)를 중시하면서 해당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2023년 전시회부터는 외국의 심사위원을 초빙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심사위원들의 연찬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FIP 심사위원 사토오 고이찌(佐藤浩一), 우취진흥협회 대표이사 요시다 타카시(吉田 敬), FIP 심사위원 앤드루 청, 일본우취협회 이사장 야마다 겐이치(山田 廉一)

4. 현재 진흥협회는 '필라텔리스트'라고 하는 일어판 저널과 '필라텔릭 저널'이라고 하는 영문판 문헌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스탬페디아 옥션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잘못 확정한 정보에 근거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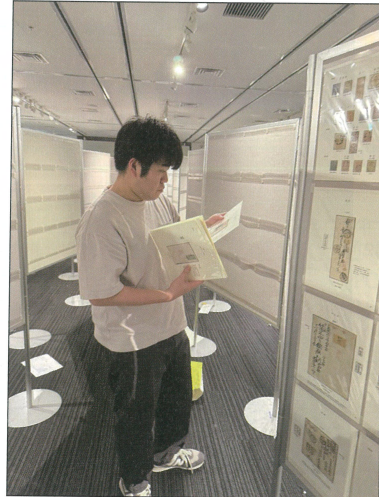
'필라텔리스트'와 '필라텔릭 저널'은 당 NPO 법인의 간행물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세계우표기타로그'스탬페디아 주식회사가 간행하고 있으며 스탬페디아 옥션 역시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10~15년 전에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저명한 베테랑 컬렉터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일본의 전시작품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퇴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요 몇 년 사이 실로 가파른 속도로 발전되는 양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초일류 수집가들을 비밀스럽게 육성한 뒤 일거에 세상에 등장시킨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

'일거에 세상에 등장했다'라기보다 전국적으로 존재해 온 우취 기반에서 육성된 분들이 현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본의 우취계도 우취 인구의 감소 경향을 실감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수집가의 고령화와 후계 부족이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우취단체의 활동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전통적인 수집가의 화동(일본우취협회의 지방대회 등)이나 소규모지만 우표전시회의 개최 등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수집을 단념하신 분들이 직업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다시 우취의 세계로 돌아와 열성적인 수집가가 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6. 제가 70년대 중반에 일본에 거주할 때 이미 청소년들이 외국우표의 전통수집을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었다는 데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표취미의 영역에 있어 도저히, 아마도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일본은 외국우표의 전통수집에 있어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한국전통과 테마틱 이외에는 거의 불모지라 같이 우표취미의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언제부터 이런 균형된 접근을 도모할 수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우취계는 옛날부터 전통우취, 우편사, 테마틱 그리고 일본과 외국이라고 하는 기존의 수집 분야가 균형이 잡혀진 상태에서(라고는 해도 당연히 일본 분야가 많지만) 발전해 왔으며 각 분야에서 막강한 능력을 가진 선배들 덕분에 후배들이 이를 면면히 계승해 왔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우취지분만 아니라 각종 우취단체의 회보, 개인 출판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기회와 매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우표전문 우취가, 키도 유우스케(木戸裕介)

7. 귀 협회는 일본의 우정박물관과 어떤 제휴관계를 갖고 있는지 외부에 공개가능한 내용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우표 관련 아카이브를 공개하여 목록을 제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정박물관은 당 협회가 개최하는 우표전시회의 공간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박물관 측이 협회에 대해 각종 지원을 요구할 경우 별다른 대가 없이 협회 측에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정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연 1회, 3월 말에 개최하는 '스탬팩스 재팬'과 '우정박물관 특별콜렉션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자는 202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후자는 2017년부터 연 2회 정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회나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단 전자가 100틀로 정해져 있는 데 반해 후자는 40틀 전후이기 때문에 규모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8. 금후 진흥협회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나 기획사업 등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행사인 'Stampex Japan', 'Japan Philatelist Summit'의 안정적인 운영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당 협회에서는 우취 진흥을 위해 국내의 경쟁전 출품자를 늘리는 것과 보다 높은 상을 획득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인근 각국의 필라텔리스트 여러분들과 협력해 멀티내셔널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Stampex Japan 2025'부터는 IREX(개별규정)을 영문으로 작성해 해외로부터의 출품을 받아들이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여행 비용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첫해는 유감스럽게도 출품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본 시책을 해외에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운용방식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탬팩스 2025' 전시회 준비를 마친 직후의 사진
정가운데가 요시다 타카시 대표이사, 바로 우측이 요코야마 유우조(横山裕三) 이사, 맨 우측이 최연소 키도 유우스케(木戸裕介)

9. 이번 필라코리아 2025 전시회에 일본 측 수집가들이 적극적으로 출품해 주신 결과 90틀을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오는 9월 필라코리아 참관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